

격 려 사

이른 더위가 봄의 한가로운 발걸음을 재촉하는 계절입니다. 따스한 봄 기운을 밀어내는 따가운 햇살 속에 질어가는 녹음과 생명의 약동을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기운이 가득한 오늘, 우리는 비구니 회관의 건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불교는 비구니 승가의 전통을 오롯이 지켜온 몇 안 되는 불교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구니 승가가 소멸한 곳도 있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는 곳도 있지만 우리의 비구니 승가는 지난 1700년의 한국불교사를 지탱해온 당당한 주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도 비구니 스님들은 종단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종단의 기틀을 바로 세운 봉암사 결사의 일원이었는가 하면 그 정신을 계승한 성주사 결사 등을 통해 청정한 수행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종단 정화불사의 주역으로 청정승가를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제양성과 포교 분야에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며 한국불교를 현대화하고 그 모습을 새롭게 일신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이와 같은 활약을 토대로 하여 모든 비구니스님들의 총본산을 건립하자는 원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전국비구니회관입니다. 1968년 조직된 '우담바라회'와 이를 계승한 '전국비구니회'를 운영해 오면서 지속된 회관 건립의 간절한 서원의 결정체가 바로 이곳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비구니회관은 우리 조계종 비구니스님들과 여성

불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교육은 물론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 도심포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육·포교도량으로서 그 기능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국비구니회관이 수행한 기능과 역할을 잘 살펴본다면 수행과 교육, 포교의 올바른 모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관 10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목표와 원력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비구니회관의 건립은 전국 비구니들의 30년에 걸친 비원(悲願)이었습니다. 그 비원을 성취하고 10년이 흐른 지금, 여러분들의 간절한 서원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홍서(弘誓)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종단은 자성(自省)과 쇄신(刷新) 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어 가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롭게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또한 조계종이 앞으로 불교와 우리 사회를 위해 간절히 바라는 큰 서원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전국비구니회관의 개관 10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계기로 삼도록 합시다. 그리고 포교, 교육, 문화 도량으로 그 역할을 다해온 이곳이 이제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전국비구니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찾아가는 10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의 개관 10주년을 축하드리며 그간 이 회관의 건립과 운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2012)년 5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